

여성낙농인들의 열렬한 호응속에서 막내려...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희)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여성낙농인 우유요리 홍보요원화 교육이 경기 남부 지역(8월 8일)을 시작하여 전남지역(9월 25일)을 끝으로 여성낙농인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여성낙농인 우유요리 홍보요원화교육은 올해 2회째로 2008년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에는 우유가 요리와 접목되어 어떠한 영양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우유요리영양학 특강으로 여성낙농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 시작되는 우유요리 실습 교육은 오전에 받은 우유요리 영양학 특강을 바탕으로 3~4가지 요리를 직접 실습해봄으로써 우리우유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금 깨우치며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우리우유 홍보요원으로써의 자질을 함양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한 여성낙농인은 “우유요리 영양학 강좌를 통해 우유요리 속 영양을 머리로 배우고 우유요리실습을 통해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행사 시에 우유요리에 있어 우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낙농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유요리 홍보요원화 교육은 경기 남부(평택), 경기 북부(파주), 강원(원주), 충북(청원), 충남(연기), 전북(전주), 경북(경주), 경남(함안), 제주(제주시), 경북(경산), 전남(나주)을 끝으로 총 11개 지역, 250여 여성낙농인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받은 여성낙농인들은 우유홍보요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국민건강과 우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강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남





경북
경산



경북
경주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